

ISU

2017 SUMMER VOL. 89

INSIDE

꽃보다 힙합

힙합을 사랑하는 이수인들의 이야기

Show me the 팀웍

이수역사캠 영업1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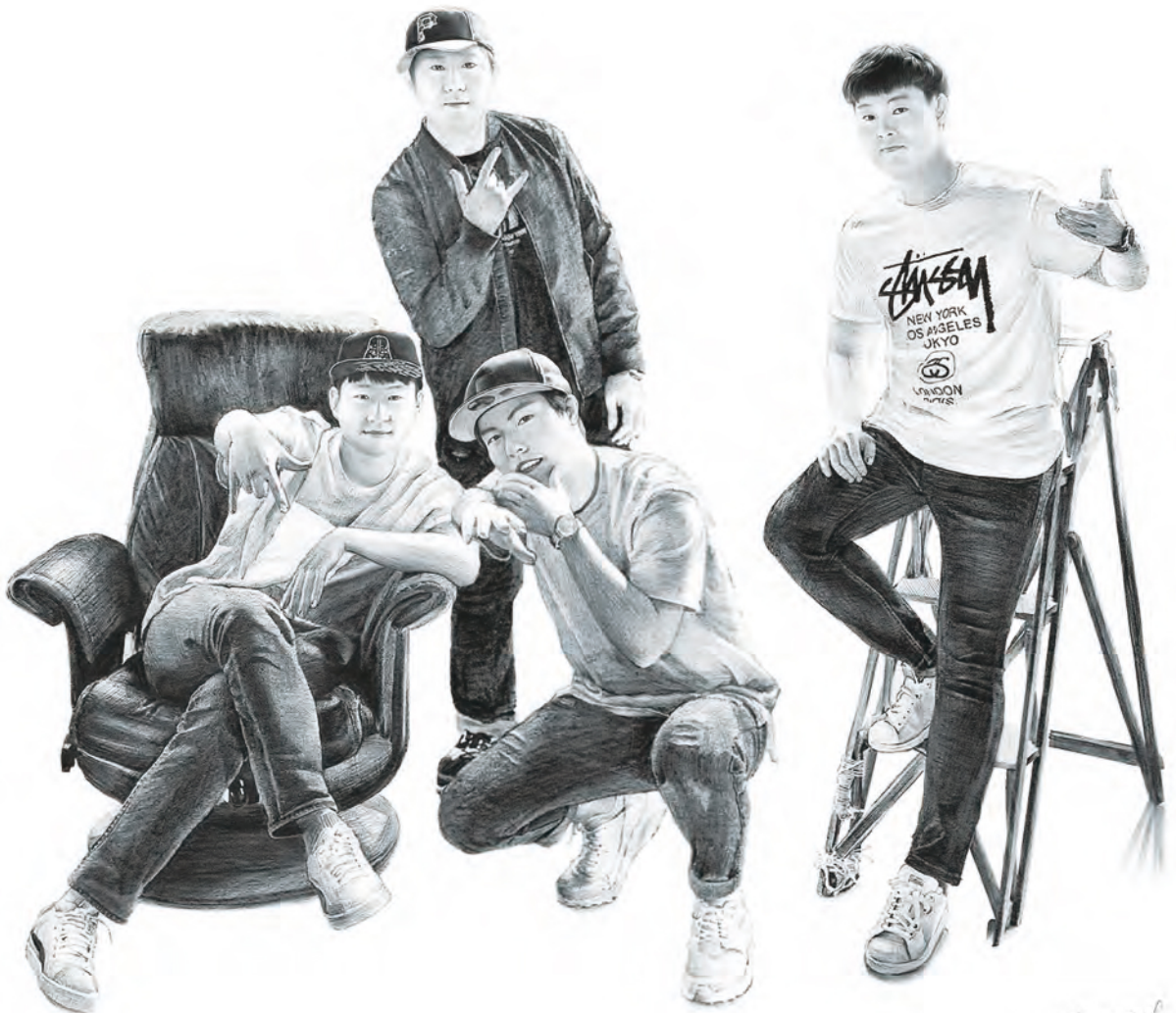
OUTSIDE

몸도 마음도 힐링

온몸으로 즐기는 짜릿한 레포츠

아이러브 Culture

무더위를 날려줄 서늘한 공포영화



Handwritten signature

Contents

01

Coverstory



표지 모델

왼쪽부터 이우성 사원(이수화학),
앞 김양제 사원(주)이수, 뒤 이진우 사원(이수건설),
문정식 사원(이수애플지스)

표지 작가_ 변영재

'ISU FAMILY FESTIVAL 2017'에서 힙합 무대를 선보였던 4인방, 촬영 당일에도 끼와 재치를 솔직하게 풀어내며 유쾌한 바이러스를 뽐어냈다. 힙합 음악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담은 그들. 훗날 '이수를 빛낸 4인방'으로 만나길 기대해본다.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17년 여름호 통권 89호

발행일 2017년 7월 10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김정희 02-590-6895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장구·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김다혜)
이수건설(이진우)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정유숙)
이수애플지스(박예스더) 이수엑사렘(한재원)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엑사보드 인천공장(심경미)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홍주희, 디자이너 민수기

인쇄 삼우아트(주)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04

INSIDE

05 Focus & News

10 이수를 잡아라

신규법인 이수AMC 창립

12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셀링

16 꽃보다 힙합

힙합을 사랑하는 이수인들의 이야기

22 Show me the 팀웍

이수엑사렘 영업1팀

26 이수 상식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28 Photo essay

사진으로 말하는 그들만의 이야기

엄지연 (주)이수 경영지원팀 대리

문선혜_ 이수건설 경남혁신 LH 최공현 과장 배우자

30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제3의 침팬지〉

33

OUTSIDE

34 스페셜 리포트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자세

40 이수미식회

이수엑사보드 김슬기 사보기자 추천 식당_ '진천식당'

44 몸도 마음도 힐링

은몸으로 즐기는 짜릿한 레포츠

50 What's new?

올로 예능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54 아이러브 Culture

무더위를 날려줄 서늘한 공포영화

57 Ombudsman

58 퀴즈 및 엽서

최고의 품질과 무사고 기원 당부

지난 4월 12일, 김상범 회장은 이수건설 '브라운스톤 범어' 현장을 방문했다.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김상범 회장은 현장 및 견본세대를 둘러보며, 최고의 품질과 무사고 기원을 당부했다. 한편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지하 6층~지상 37층 아파트 180가구, 지하 4층~지상 35층 오피스텔 260실 등 총 440세대 규모의 '브라운스톤 범어'는 2014년 당시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분양을 달성한 바 있다.



김상범 회장,
브라운스톤 범어
현장 방문



㈜이수

지난 6월 27일 이수그룹은 공식블로그 '이수캐스트'를 오픈했다. 공식블로그 명칭인 '이수캐스트'는 '이수'와 방송의 '캐스트'가 합쳐진 말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거점 채널을 뜻한다. 특히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대중들과 소통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그룹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 블로그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이수 그룹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채용, 피플, 테크 등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제공한다.



블로그는 'blog.isu.co.kr'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수화학

'2017년 소통과 공감' 교육 실시

이수화학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주 황룡원 연수원에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소통과 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8차수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은 임직원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소통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마련했으며, 다양한 팀플레이를 통해 팀워크와 유대감도 한껏 높였다.

1분기 실적 설명회 개최

이수화학은 지난 5월 1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2017년 1분기 실적 설명회를 가졌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이수화학의 경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수화학은 이번 실적 설명회 외에도 투자자 공장 투어, 기업 설명회 등 꾸준한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수페타시스

대구시 '2017 고용 친화 대표기업' 선정

지난 7월 4일 이수페타시스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선정한 '2017 고용친화 대표기업'에 선정됐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우수한 고용창출 실적과 근로환경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기업들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해왔다. 올해는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해 총 17개사가 까다로운 요건 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저소득층 자녀 문화체험행사 진행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5월 2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제8회 희망체험스쿨'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이수페타시스가 위치한 달성군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남원훈불문학마을에서 30명의 아동과 함께 농작물 재배, 목공예 체험 등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수건설

분양 준비 및 연이은 수주

이수건설은 6월 부산 '동대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아파트를 '브라운스톤 하이포레'로 명명하고 본격적인 분양 준비에 나섰다. 지하 3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 59~84㎡ 총 5547구로, 이 중 299가구(전용 74·84㎡)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각 건설 분야의 수주도 이어졌다. 4월에는 울산송정 B-3BL 아파트 2공구 건설공사를, 5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수주했으며, 6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한강 Ac-01aBL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수시스템

HR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주 지속

이수시스템은 영원무역, 카카오뱅크에 이어 지난 6월 19일 일지테크 'e-HR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일지테크는 자동차 차체용 부품과 금형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주요 제품이며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이다. 일지테크는 2011년 중국 북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경주공장을 설립하면서 금형공장을 별도 법인(주)아이제이에스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이수시스템은 증가 및 분산되어 있는 일지테크의 임직원 인사정보를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수창업투자

<군함도> <장산범> 등 상영작품 소개

이수창업투자는 한국영화 및 외국영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룹 임직원분들에게 좋은 작품을 소개하려고 한다. 6월에는 뮤지컬 <마타하리>가 개막해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공연 중에 있고, 7~9월에는 한국영화 <군함도> <장산범>과 외화 <Deep> <Polaroid>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상영작품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이수앱지스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에 '애브서틴' 개발기 방영

지난 6월 4일 이수앱지스가 참여한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107회 <인간을 향한 진화 - 바이오의약품>편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서는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는 고셔병에 대한 소개와 이수앱지스가 직접 개발한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이 소개됐다. '애브서틴' 투약 환자 및 담당 의료진 인터뷰도 함께 나왔다. 특히, 이석주 대표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독점 형태로 제공되던 희귀질환치료제와 동일한 제품을 이수앱지스가 직접 개발하면서 낮은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내외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수엑사팀

2017 이수가족 한마을 야구 교류전

지난 4월 29일 이수연합, 이수건설, 토다이수의 야구팀은 경기도 양평의 강상 야구장에서 '2017 이수가족 한마을 야구 교류전'을 가졌다. 약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개 팀은 번갈아가며 시합을 진행했고, 임직원과 가족들이 준비된 간식을 즐기며 경기를 관람했다. 승패를 떠나 평소 교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룹 내 임직원들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신규법인 이수AMC 창립



지난 6월 8일 이수AMC 창립기념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시 반포동에 본 사무실을 둔 이수AMC는 부동산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CS(Customer Service) 하자관리 서비스, FM(Facility Mgmt)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PM(Property Mgmt) 부동산 자산 및 임대관리 서비스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계열사 사장단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AMC의 성공과 기원을 다짐하는 '성공기원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수AMC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약 100명의 임직원이 사업을 꾸려 나간다. 향후 부동산 자산운용,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영역까지 진출,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한편, 이수AMC 최상호 대표이사는, "종합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기존 건설업의 개발, 시공, 분양의 단순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활서비스를 연계한 B2C산업으로 영역을 무한하게 확장 가능하다"며 "가까운 미래에 이수그룹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립식에 참석한 임직원들. 왼쪽에서 네 번째 최상호 대표이사

투 투 투
독 독 독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셀링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을 앞에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마땅한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회사생활과 업무적으로 궁금한 것 투성일 때
투투투 사이드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경험과 연륜, 지혜와 진심이 담긴
조언이 전해집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혹은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박성준 사원(이수페타시스 영업2팀)

Q



조혜임 대리
(이수화학 영업팀)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한다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객이 시장 진입 초기인 경우 공급사는 시장에 관한 정보나 지식에 있어 우위에 있고, 고객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때로는 회사의 단기적 수익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계약이 되더라도 고객이 그 사실을 알기까지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근거한 합리적 가격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고객은 회사의 고정 거래처가 돼 주었습니다.

또, 신뢰 관계를 위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신속한 대응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객 불만 및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와 함께 요청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 시킬 경우 의혹이 생길 수 있

고, 고객이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불편한 이슈가 있을 경우 더욱 솔직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상호 협력한다면 신뢰는 더욱 높게 쌓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마음으로 주기적인 구매 의향 파악 및 Face to Face 미팅을 갖는 것은 고객의 '거래하고 싶은 회사 List'에 우리 회사가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루 중 눈꺼풀이 무거운 3시,
어떤 방법으로 졸음을 쫓으시나요?”

박시혜 사원(이수엑사캠 영업2팀)

Q



김택승 차장
(이수앱지스 RA팀)

회사생활을 하면서 점심 후 나른한 신체 반응을 못
이겨 좋아 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직급의
높고 낮음, 일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은 정말 막강하죠.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돌아다니거
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등 잠을 깨
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죠. 신체의 움직임이나 환
경의 변화 등은 잠을 떨치는데 꽤 효과적입니다.
혹시 그래도 잠을 떨치지 못한다면 머리를 싸매고
집중해야 하는 일은 잠시 미뤄둡니다. 어차피 좋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없으니 차라리 단순 노동을 선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풀
더 정리를 하거나 문서 파쇄 등 가벼운 업무로 머리
를 식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말 너무 졸리다면
나만의 장소(?)를 하나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너무 길지 않도록 말이죠... ^^



“신입 시절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선배님만의 방법이 궁금해요!”

김유라 사원(이수화학 영업팀)

Q



김명세 차장
(주)이수 경영지원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의 경우는 routine
한 업무가 대부분이죠. 업무처리를 할 때도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또는 관련 법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
해진 대로만 한다면 큰 실수는 없을 거예요. 하
지만 문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죠. 기존
일반화된 룰에 따르자니 찝찝하고, 귀찮기도 하
고...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실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관련 규정을 꼼꼼
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왜 그런 규정이 만들
어졌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시절
법인 세무를 일부 담당했었습니다. 현업에서 여
러 가지 문기가 들어오는데 회사의 사례와 판박이
처럼 동일한 사례를 예규, 판례에서 찾기는 어려
웠고 있지도 않았죠. 다만 비슷한 예규, 판례를
찾아서 읽다 보니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게 이해되었고,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다른 case
도 판단하기 쉬워졌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때도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했죠. 혹시라도 업
무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뭔가 불합
리하다고 느낀다면, 실수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
로 판단하고 선배들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
세요! 생각보다 꼬인 실타래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꽃보다 힙합

힙합을 사랑하는 이수인들의 이야기

왼쪽부터 문정식 사원(이수앳지스), 김양제 사원(주)이수, 이우성 사원(이수화학), 이진우 사원(이수건설)

〈쇼미더머니〉 〈힙합의 민족〉 〈고등래퍼〉 등은 요즘 상한가를 치는 힙합 예능이다. 흥대 앞 공연, 대학 축제, 파티 클럽 등에서도 스웍~ 넘치는 힙합이 그야말로 대세다. 특히 jtbc의 〈힙합의 민족〉에서는 평균 연령 65세 할미 래퍼들이 등장해 랩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말 그대로 세대를 불문하고 힙합의 매력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지난 5월 'ISU FAMILY FESTIVAL 2017'에서도 힙합 무대가 선보였다. 4명의 신입 사원들이 만들어 낸 열정의 무대는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을 '이수'라는 하나의 울타리로 뭉기에 충분했다. 거친 입담과 과한 스웍으로 반항기 많은 10대들의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던 힙합이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멋진 힙합 무대를 선보였던 그들을 만나 이야기해본다.

대담 진행 _ 김정희 대리((주)이수 브랜드관리팀)

'ISU FAMILY FESTIVAL 2017'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양제 사원 함께 연습한 동기들과 좋게 봐주신 임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무사히 마치고 나니 훌거운 기분입니다.

문정식 사원 사실 제가 몸치라 간단한 동작도 잘 따라 하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수 없이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이진우 사원 리허설 무대에서 극도로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본 무대에서는 7분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후련함과 아쉬움이 남는 공연이었지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우성 사원 저희 무대를 열렬히 공감해주신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연습하고 공연한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공연 연습을 하는 동안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김양제 사원 공연을 하며 취해야 하는 각종 손짓들과 움직임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색하기도 했고, 막상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그런 동작들에 익숙해졌고, 한 번뿐인 기회라는 생각으로 즐기면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문정식 사원 스튜디오 녹음을 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는 자신감을 갖고 세 번 만에 녹음을 끝내자고 했었는데, 다들 처음이다 보니 수십 번 녹음을 해야 했죠. 녹음 후 저희 목소리를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나에게 힙합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분전환이다.”

김양제 사원

이진우 사원 노래를 듣는 것과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냥 즐기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무대에 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컨셉이 힙합이었기 때문에 관객들과 함께 호응하는 부분과 다른 팀원들의 안무에 자연스럽게 녹아 드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처음 무대의상을 입고 연습했을 때, 다들 웃음을 참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우성 사원 강남의 녹음실에서 직접 녹음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진짜 가수가 된 양 기분이 묘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전문 녹음실에서 직접 녹음을 했던 일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힙합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김양제 사원 중학교 때 친하던 친구의 영향을 받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힙합 음악이 지금처럼 대중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정보도 얻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양한 가수들의 곡들을 접할 수 있었죠. 현재도 좋아하는 가수들이 곡을 발표하면 대부분 들어보고 있습니다.

문정식 사원 본격적으로 힙합 음악에 입문한 건 다이내믹 듀오의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대중적인 힙합 음악으로 입문해서 나중에는 언더그라운드 래퍼가 발매한 Mixtape도 찾아서 듣게 되었죠. 요즘은 바빠서 음악을 많이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 예전에 들었던 음악들을 들으면 신나는 기분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진우 사원 친구가 ‘배치기’라는 가수의 음반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CD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힙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가사와 신나는 리듬이 마음에 들어서 비슷한 느낌의 힙합을 자주 듣게 되었고, 지금도 신나는 멜로디의 힙합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우성 사원 사실 저는 힙합을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힙합을 처음 접한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힙합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힙합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김양제 사원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힙합의 가사에는 라임과 플로우가 있고, 래퍼들은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에 중의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도 많죠. 그런 의미들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듣는 것도 힙합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정식 사원 힙합의 매력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돌리지 않고 바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한 자신감(Swag)이나 욕설로 듣기 싫어지는 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재치 넘치는 라임으로 듣는 맛이 있는 신나는 곡들도 많죠. 또 발라드보다 더 우울한 곡들도 많고요. 대중가요보다 주제가 다양해서, 듣다 보면 내가 하고 싶던 말을 표현해주는 것 같아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우 사원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장르의 음악이 시에 멜로디를 입힌 것 같은 느낌이라면, 힙합은 소설에 박자를 더한 느낌이거든요. 같은 길이의 음악에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생각하며 듣는 게 힙합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성 사원 나만의 생각을 가사에 담고 박자와 리듬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면서, 솔직한 나를 표현하는 게 힙합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힙합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힙합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힙합의 인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양제 사원 흔히 말하는 ‘디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힙합 음악 자체도 인기가 많지만 가수들끼리의 디스전 또한 예능에서 사용하기 좋은 콘텐츠이니깐요. 하지만 앞으로는 디스만이 아니라 힙합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문정식 사원

“나에게 힙합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이다.”



문정식 사원 힙합은 자신을 드러내어 표현해야 하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음악이기 때문이죠. 더불어 힙합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힙합 공연이 흥행하고 있는 점도 인기몰이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진우 사원 우리가 쉽게 표출하기 어려운 네거티브하고 어두운 감정들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음악에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힙합에 대중성이 접목되면서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 같고요.

이진우 사원

“나에게 힙합은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다.”



이우성 사원 힙합이 각광받는 이유는 ‘젊음과 자유’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부 인생의 성공이고, 미래에 잘 살기 위해 기꺼이 현재를 희생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힙합은 이러한 경쟁에서 벗어나 가끔은 현재를 즐겨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힙합은 “한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며 너의 꿈을 좇으라”는 젊은 트렌트와 맞물리면서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힙합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고 재미있는 힙합 음악을 추천해 주세요.

김양제 사원 매드클라운을 추천합니다. 신나는 곡이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대중적인 곡들을 선보이고 있어 처음 접하기에 좋습니다. 또 특유의 날카로운 랩과 재미있는 가사를 듣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곡들이 음원차트에서 순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정식 사원 다이نام믹 듀오는 저를 힙합 음악에 입문하게 한 뮤지션입니다. 대중적인 곡들이 많고, 덕션이 좋아서 가사를 음미하기에 좋습니다. 다이نام믹 듀오의 발표 곡들이 사회 문제나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것도 추천 포인트입니다.

이진우 사원 슬픈 분위기의 힙합을 듣고 싶다면 배치기의 ‘눈물사워’나 박명호의 ‘사진’, 설레는 느낌의 힙합은 드라마 OST였던 로꼬의 ‘우연히 봄’, 신나는 느낌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다이나

믹 듀오의 ‘불타는 금요일’이나 슈프림팀의 ‘땡땡땡’을 추천합니다. 힙합은 무대를 직접 보는 것도 정말 재밌는데요, 개인적으로 쇼미더머니 시즌5의 첫 번째 베틀이었던 비와이의 ‘Forever’ vs 보이비의 ‘호랑나비’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우성 사원 알피(R.P)의 ‘LOVE&K2SS’를 추천합니다. 이 곡은 귀에 익숙한듯하지만 새로운 멜로디, 아이의 순수함과 젊은이의 패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사 등, 나도 모르게 리듬을 타게 만드는 흥겨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힙합은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YOLO다.”

이우성 사원



힙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직원들.
왼쪽부터 문정식 사원(이수애플지스), 김양제 사원((주)이수), 이우성 사원(이수화학), 이진우 사원(이수건설)



석유화학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특수 기능액 D-SOL과 PARASOL 및 고분자 제품의 필수 첨가제인 TDM 등 독자적인 제품을 바탕으로 관련 아시아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 하고 있는 이수엑사켴. 그 눈부신 성장 뒤에는 국내외를 중흥무진하며 꼼꼼한 시장조사와 전략적인 판매계획으로 성공적인 영업을 해낸 영업1팀이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슈퍼히어로가 되어주며 끈끈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영업1팀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
조용민 차장, 박수영 사원, 김신혜 사원, 정윤경 사원, 오재욱 부장, 김민정 사원, 김연식 사원, 정지훈 사원, 권상우 대리, 최승균 과장



서로가 서로의 영웅이 되어준다

이수엑사켴 영업1팀

한마음, 한뜻이면 못할 것이 없다!

이수엑사켴 영업1팀은 이수화학 온산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수제품인 D-SOL과 PARASOL,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생산되는 D-SOL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슈퍼맨처럼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오재욱 팀장은 수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용민 차장, 최승균 과장, 김연식 사원, 박수영 사원과 내수 영업을 담당하는 권상우 대리, 정지훈 사원, 지원을 맡고 있는 정윤경 사원, 김민정 사원, 김신혜 사원을 이끌며 비즈니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영업으로 매년 목표달성을 거뜬히 해내는 이수엑사켴 영업1팀은 작

년 11월 현대오일뱅크와 D-SOL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계약 체결이라는 보람된 결과를 맞보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고 한다.

“보고서 준비를 위한 시장조사와 판매계획, 또 내부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죠. 준비하는 동안 부담도 크고 걱정도 많았지만, 팀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푹푹 땀 흘린 것이 성과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오재욱 팀장은 지난 현대오일뱅크와의 D-SOL 독점판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D-SOL 시장 내 신규 물량 유입으로 가격 하락과 판매 감소 등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고생한 보람이 있어 더욱 뿌듯하다고 말한다.



의사소통의 시작은 '배려'

현장에서의 영업은 곧 계약과 연결되며 목표 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의 지원이 필수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영업과 지원은 씨줄과 날줄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영업 담당과 지원 담당은 업무의 공간과 처리 방법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함께 마음을 맞춰야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수엑사캠 영업1팀은 항상 '배려'를 잊지 않는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이 부족할 때, 업무 해결만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하다 보면 불통은 더 심해지고 처리 속도도 늦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배려를 시작으로 동료들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협조해 나가면 생각보다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용민 차장)

배려의 시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이다. 하지만 영업은 잦은 외근과 출장으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

다. 그래서 오재욱 팀장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SNS(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를 활용한 즉각적인 소통창구를 만들었다. 단, 배려를 잘 알고 실천하는 팀인 만큼,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 등 SNS 에티켓은 철저히 지키고 한다.

동남아 용제시장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이다. 즉, 구매자의 구미를 최대한 맞춰 판매 계약에 성공해야 비로소 그 과정들이 의미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오재욱 팀장은 '영업은 숫자고 숫자는 인격'이라고 강조한다. 얼핏 보면 오로지 성과지향적인 말 같지만 오 팀장의 해석은 이렇다.

"영업 실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노력들이 있죠. 때론 좋지 않은 결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은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끝없이 인내하며 다시 즐겁게 해내야 합니

다. 그런 숭한 과정들이 쌓여야지만 비로소 실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영업 시장의 치열함과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오 팀장과 팀원들은 팍팍한 현실을 잇는 주문을 건다.

"그렇다고 영업을 너무 재미없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모든 일에는 성격은 다르지만 저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나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왠지 열심히 해도 성과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면 배우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등, 긍정적인 의미를 두려고 노력하죠!" (최승균 과장)

어떤 이들은 영업맨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실적'이라고 말한다. 실적에 따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1팀은 그 두려움과 부담감마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기고 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들이 소중한기 때

문이란다.

2017년 새해, 영업1팀이 세운 목표가 있다. 하나는 신규경쟁사가 출현하더라도 이수화학 온산공장 가동률을 100% 유지시키는 것과 현 대오일뱅크 판매 관련 계획들을 달성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물론 갈수록 치열해지는 용제시장에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참아낼 줄 아는 인내와 일을 즐길 줄 아는 현명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손잡을 줄 아는 영업1팀이라면 올해의 목표는 물론 동남아 용제시장에서의 정상도 노려볼 만 하다.



오재욱 팀장의 Message



이수엑사캠 영업1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무엇이든 함께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모습들로 더 멋지고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팽이처럼 돌 되, 그 중심을 잃지 말아라!' 영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움직여야 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하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호기로운 자신감으로 '할 수 있다'를 외치며 우리의 꿈을 위해 거침없이 나가길 바랍니다. 언제나 제게 든든한 영웅이 되어주는 고마운 나의 팀원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직한 슈퍼맨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업1팀 여러분!



돌잔치

사연 _ 엄지연 대리((주)이수 경영지원팀)

2016년 2월 21일에 태어난 사은유 공주님!

저희들의 예쁜 아가랍니다.

그런데 사진 속 돌잔치 모습은 2016년 12월 18일이랍니다.

모두들 '돌잔치를 왜 이렇게 일찍 했지?'라고 하시겠지만

은유의 아빠가 그때쯤 해외에 나가있게 돼 미리 당겨서 하게 된 거죠.

생일을 맞춰주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빠를 포함해

은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두 달이나 빠른 돌잔치에 많은 사람들과 낯선 환경을 무서워했던 은유지만

그래도 돌잡이 때 아무지게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은유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줄 거지?" ㅎㅎ



기차여행

사연 _ 문선혜(이수건설 경남혁신 LH 최공헌 과장 배우자)

우리는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달픈지 가끔씩 느낌의 미학을 쫓아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저는 기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은 앞만 보고 달려야 하지만

기차는 차창 밖의 풍경을 느긋이 눈에 담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유를 핑계 삼아 제 추억의 보물 상자도 하나 돌씩 꺼내볼 수 있고요.

그렇게 흐릿한 소소함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도착해 있는 플랫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그곳은 여행의 설레임을 배가 시킵니다.

어릴 적, 소풍 전날 맛있는 과자를 듬뿍 싸놓고 잠을 뒤척이던 그 때처럼.

기차여행은 그 행복함을 고조시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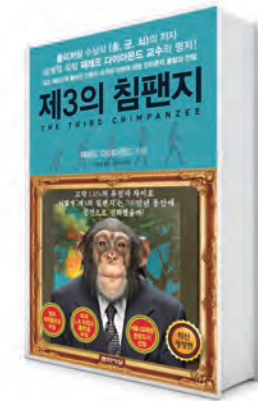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아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hee895 / 이메일: jhk653@isu.co.kr

매번 서재의 책장 앞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책을 권해볼까?'
이 책 저 책을 만지작거리며 고심 끝에 한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쳐다보며 마음을 담죠.
내가 느꼈던 그 이상의 배움과 가치가 우리 이수인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어떤 의식 같은 이 시간이 저는 참 소중한입니다.
여러분도 이 한 권의 책으로 행복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인에게 권하는

김상범 회장의 '좋은 책'



인간의 본성과 문명의 발달 과정을
명쾌하게 풀어낸 인류진화보고서

제3의 침팬지

| 저 자 | 재레드 다이아몬드
| 출판사 | 문학사상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는 1.6%

이 책은 1996년 초판을 21세기의 상황에 맞게 개정 출간한 것으로, 2013년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의 표기법, 띄어쓰기 및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고, 표와 그림을 새로 작업하여 한층 세련된 감각으로 디자인되었다.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진화인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저에서 인류의 진화 역사를 냉정하고 날카롭게 통찰한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가 단 1.6%라는 생물학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인류의 탄생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진화학, 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고고학, 역사학을 총망라한 재치 있는 설명과 다양한 예시로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저자 소개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1937년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를 거쳐, 조류학, 진화생물학, 생물지리학으로 학구적 영역을 넓혀왔으며,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여러 외국어를 구사한다. 특히 한글도 해독하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한글 찬양론자이기도 하다. <네이처 Nature>, <내추럴 히스토리 Natural History>, <디스커버 Discover> 등 세계 최고봉의 과학지誌 빈번하게 기고를 하는 최고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하며, 과학 저술인으로서도 활약 중이다. <제3의 침팬지 The Third Chimpanzee>로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영국의 과학출판상과 미국의 L.A 타임스 출판상을 수상한 바 있고, 미국예술과학 아카데미, 미국과학아카데미, 미국철학협회 회원이며 미국지리학회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1998년 풀리처상과 영국 과학출판상을 수상한 <총, 균, 쇠 Guns, Germs, and Steel>를 비롯해 <문명의 붕괴 Collapse>, <어제까지의 세계 The world until yesterday>, <제3의 침팬지 The Third Chimpanzee>, <섹스의 진화 Why Is Sex Fun?> 등이 있다.

인류의 문화가 번영해가는 생물학적 기반

인간이 침팬지에서 분리되어 인류라는 독특한 종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DNA분석으로 알아본다. 인간의 유전 형질은 보노보나 다른 아프리카 침팬지의 유전형질과 98.4%가 같고 차이는 단지 1.6%에 불과하다. 이 작은 차이로 인류가 어떠한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고고학적 유적과 생물학적 증거를 들어 집중적으로 분석·해결한다. 이어서 골격상의 변화와 더불어 언어와 예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인간의 생활상의 변화를 다룬다. 이 책은 남녀의 공동 육아, 혼인 관습, 성교의 목적, 진화 경쟁에 위배되는 인간만의 윤리 법칙, 노화와 여성의 폐경의 의미 등, 제1, 2 침팬지의 눈으로 봤을 때 기괴한 인간만의 독특한 생활사를 인류의 진보와 관련하여 제시한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문화적 특징

언어, 예술, 농업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특징이다. 그렇다면 다른 동물에게는 언어나 예술적 능력이 없는가? 예술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인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 농업의 시작은 인간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농업이 진보의 기념비적인 사건인 동시에 악의 시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에 제시한 자랑스러운 특징 외에 음주·흡연 등 해로운 화학물질에 빠지는 것도 인간의 널리 알려진 특징 중 하나이다. 왜 인간은 해로운 약물에 빠져드는가? 저자는 인간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것도 자신이 강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과시 행동이라는 자하비의 핸드캡 이론을 소개한다. 한편으로 화학물질 남용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자기 과시를 넘어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인간만이 갖는 어두운 일면에 우려를 표명한다.

인류가 직면해 있는 생존에 대한 위협

저자는 인류 진화와 문명 발달사를 돌아보며 인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암울한 미래를 끊임없이 경고한다. 이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환경파괴와 대량 학살, 핵 위협 등을 제시한다. 농업의 시작으로 인간이 한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본래 생태계가 가지고 있던 다양성은 인간의 구미에 맞게 획일화되고 파괴되었다.

또한 정착하기 위한 보다 나은 환경, 보다 넓은 땅을 위해 민족 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껏 격리되어 있던 토착종들을 학살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인간만의 특질은 아니나 동물보다 더 체계적이고 잔인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에 더해 인류는 동물도 가질 수 있는 잔혹성 외에 오직 인간만의 특질로서 멸망의 기로에 스스로 서게 된다. 바로 핵이다. 태평양전쟁의 종식을 알린 나가사키 핵 투하로 인해 전 세계가 핵의 위력과 위협을 실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의 존재에 매달리고 만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일까? 이 책은 인류의 역사를 냉철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OUT
SIDE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자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제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여러 용어들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일상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눈을 뜨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웨어러블 기기가 심박수와 혈압을 체크해 오늘의 건강상태를 알려준다.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점검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야채와 우유를 배달시키고 로봇이 저녁식사 준비를 돕는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네 번째 산업혁명은 이미 산업과 일상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는 '현재 진행형 미래'가 되었다.

글 _ 임유빈(엡스토리 IT&테크 담당기자)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고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4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는 AMI(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독일과 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융합과 네트워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대량의 정보를 다양한 기기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4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는 AMI(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독일과 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기술 기반 위에서 만들어 지는데, 융합과 네트워크가 가장 큰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은?

4차 산업혁명의 기원은 2011년 독일의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제시된 인더스트리 4.0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그의 책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더스트리 4.0에 생명과학기술 및 나노테크놀로지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더해져 사회의 질적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간단히 그려보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처리하는 ‘스마트 세상’이다. 다시 말해 정보화 혁명의 확장을 뛰어넘는 아날로그의 완전한 디지털화, 인공지능화를 의미한다. 어디에서든지 모바일, 인터넷과 연결하여 기기를 조작하고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비서 로봇이 출근시간에 맞추어 자율주행택시를 예약해 주고 차량을 타자마자 목적지까지 예상 소요시간과 오후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일상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전망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 전망은 어떨까? 세계의 자본은 지금 VR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VR하드웨어시장이 2020년 1억10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25년 VR시장의 규모가 약 1,100억 달러(약 128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매출도 거의 없던 VR 기기 회사를 페이스북이 20억 달러나 들여 인수하고 구글, MS, 소니, 삼성, 네이버 등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과 디즈니 등 콘텐츠 산업의 최강자까지 앞다투어 VR 산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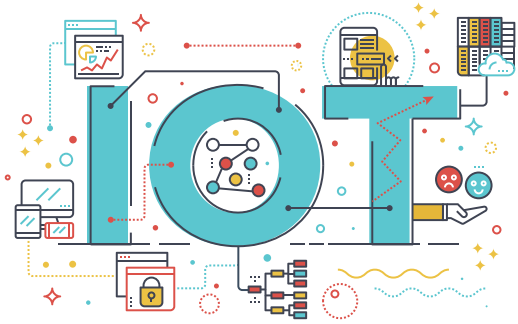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VR의 몰입감과 체험감이 게임을 넘어 영화와 TV, 뉴스 등 미디어 산업과 결합해 기존의 미디어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7년은 한국의 'VR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VR을 이용한 증강현실(AR)게임 '포켓몬 고'가 전 세계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VR은 더 이상 게임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VR의 몰입감과 체험감이 게임을 넘어 영화와 TV, 뉴스 등 미디어 산업과 결합해 기존의 미디어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7년은 한국의 'VR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출시가 미루어졌던 VR 기기들과 유수의 VR 콘텐츠가 줄지어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구촌 모든 사물을 연결한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일상생활의 자동화도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의 모든 현실 세계의 사물이 지능을 갖춘 '사물인터넷(IoT)'으로 진화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IoT시장은 2015년 30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연평균 28.8%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IoT시장도 연평균 38.5%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사물인터넷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있다. 최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가전제품·전기·냉난방을 통신서비스와 연계해 스스로 에너지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IoT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동시에 여러 산업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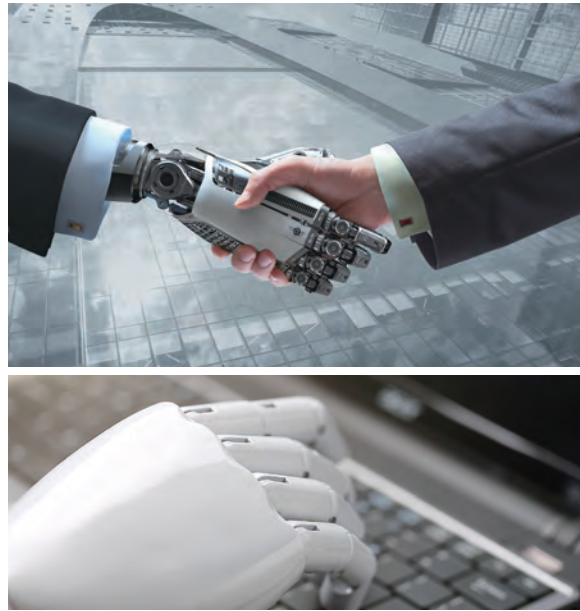


이외에도 2017년에는 자동차, 건설, 가전, 의료,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기술들은 사회와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인 인터넷과 컴퓨터 관련 기술 등은 비교적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당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변화의 바람은 크게 불 것이고 기존의 사회 경제 질서나 삶의 방식도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처하나

지금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 정보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앞서 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정부는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개최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확정했다. 이 '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된 주요 정책들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유료방송 발전방안,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등이다.

이 중에서 최근 부진한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반의 지능형 조선소와 선박을 구축하고, 해양플랜트와 해운·항만 서비스 영역에도 정보통신 융합을 확산하고자 하고 있다. 미래부는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요 내용은 조선해양-ICT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고, SW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에 100년 이상 늦었지만 정보화에 발맞춰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로 기술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단연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산업 각 분야에 정보통신·인공지능 기술이 조속히 삼투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실업, 양극화 등 지능 정보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응할 사회적 준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산업화에 100년 이상 늦었지만 정보화에 발맞춰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로 기술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단연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두운 회사 앞 맛집 소개

X

이수엑사보드 김슬기 사보기자

ISU 사보기자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한다. 회사 근처, 우리만 알고 있던 맛집을 이수가족 모두와 공유하는 시간. 사보기자들과 함께 하는 맛집 찾아 삼만리. 이번호에는 이수엑사보드 김슬기 사보기자가 추천하는 안산 원곡동에 있는 '진천식당'을 소개한다.



추천 맛집

진천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사동 777-6)
031.493.8198



“안녕하세요! 이수엑사보드의 김슬기 사보기자입니다. 안산에는 공단이 많아 곳곳에 숨은 맛집들이 많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할 곳은 원곡동에 있는 '진천식당'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철판두루치기로 신선한 야채와 도톰한 돼지고기, 거기에 맛있는 매운 양념이 잘 어우러져 밥 한 그릇은 푹딱하게 만들죠. 게다가 푸짐한 가정식 밑반찬들은 보너스~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고 하죠? 나른한 오후를 힘나게 해주는 매콤한 철판두루치기를 소개합니다.”

푸근하고 푸짐한 엄마표 밥상

안산에 위치하는 이수엑사보드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진천식당은 반월공단에 있는 맛집이다. 처음에는 작고 허름한 모습에 맛집이라는 소개가 썩 믿기지 않았다. 내부도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좁았다. 점심때는 너무 붐벼 보통 30분씩은 줄을 서야 한다가에 촬영 날은 느지막이 2시쯤 찾았다. 김슬기 사보기자의 추천으로 이곳의 대표 메뉴는 철판두루치기와 청국장을 주문했다. 5분쯤 지나니 기본 반찬들이

상에 오른다. 멸치볶음, 오이무침, 깻잎, 생채 무침, 부침개, 손 많이 가는 가정식 반찬들이 구미를 당긴다. 사보기자의 추천으로 주문이 들어 올 때마다 바로바로 굽는다는 아채전을 집어 들었다. 적당한 아채와 송송 썰은 청양고추의 조합이 주린 배에 감동을 준다. 나머지 반찬들도 대충 조미료로 맛을 낸 구색 맞추기 용이 아닌 시골에서 올 엄마가 해서 보낸 정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다.

기대 이상의 기본 찬들 덕에 주인공의 등장이 기대되는 순간, 큼지막한 철판이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앉는다. 압도적인 비주얼은 침샘을 자극하고 뇌는 이미 흥분 모드를 창작했다. 대파와 부추, 양파와 함께 도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린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익어 나온 상태. 그래도 예의상 불을 켜고 온기를 더해본다. 참, 주문할 때 함께 시킨 라면사리는 불기 전에 먹는 것이 상식! 라면사리에서 느껴지는 두루치기의 양념 맛은 맛집을 찾은 보람을 두둑하게 챙겨준다. 이제 무한리필 된다는 신선한 아채에 고기와 밥을 듬뿍 올려 입안에 넣는다. 음식물을 씹는 활동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으며 다시 씹 씹 준비를 시작한다. 한창 두루치기의 매력에 빠져있던 중 청국장의 등장에 분위기가 전



세상에는 수많은 맛집들이 있다. 하지만 종종 맛에 비해 명성만 거창한 곳도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진천식당'은 흙 속에 묻힌 진주 같다. 눈에 띄지 않는 외관이 내심 맛집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지만 차려내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맛집의 필수요소인 맛과 정성이 가득했다.



환됐다. 우선 포슬포슬한 부드러운 두부를 수저에 얹어 청국장의 맛을 본다. 간혹 씹새름한 맛이 돌아 실망감을 안기는 청국장들이 있는데, 역시 맛집의 청국장은 진한 고소함이 오래 감돈다. 청국장은 계란후라이 하나를 올려 쓱쓱 비벼야 제 맛이라고 했던가! 국물을 자작이 넣고 토실한 두부도 듬뿍 얹어 비빈다. 석석~ 밥 비비는 소리가 수저의 움직임을 재촉한다. 이내 꼼꼼히 비비는 것을 포기하고 크게 한술을 떠 맛을 본다. “음~~~~”소리는 자동발사. 소개해놓고 혹시나 맛집이 아니면 어찌나 걱정했다는 김슬기 사보기자는 맛집이 맞으며 재차 확인한다. 하지만 대답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음식을 맛본 입가만 봐도 아는 법. 식후 입가에 흐뭇함이 듬뿍 묻어있다면 그곳은 분명 만족스러웠다는 증거다. 세상에는 수많은 맛집들이 있다. 하지만 종종 맛에 비해 명성만 거창한 곳도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진천식당'은 흙 속에 묻힌 진주 같다. 눈에 띄지 않는 외관이 내심 맛집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지만 차려내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맛집의 필수요소인 맛과 정성이 가득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심신이 지친 어느 날, 엄마가 차려주는 맛깔스런 집밥이 생각난다면 당신은 주저 없이 '진천식당'을 찾아도 좋다. 물론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비스무리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을 부탁해!

온몸으로 즐기는 짜릿한 레포츠

시원한 물가를 찾아 발 담그고 물장구치는 것만으로 이 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하다. 이럴 때는 짜릿한 액티비티를 체험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성하의 태양을 물리칠 필요가 있다. 카약, 줌와이어, 열기구 그리고 맨손 은어잡이까지. 계절을 망각할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레저 스포츠를 소개한다.

글_ 이마로(여행작가) 사진_ 이마로, 평창군청, 봉화군청, 스카이레저

이카루스가 되어 하늘을 나는 짜릿한 경험

정선 병방치 짚와이어+스카이워크

몇 년 전 정선 조양강변에 조성된 짚와이어는 정선의 자연을 가장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이다. 조양강이 통과하는 정선읍 용탄리와 굴암리 사이의 말굽모양 지형이 한눈에 펼쳐지는 절벽 끝에 매달린 전망대 병방치. 짚와이어는 바로 이 병방치 절벽 끝에서 출발해 아득한 저 아래까지 순식간에 이동한다.

와이어 길이만 1.2km에 달하는 짚와이어는 착륙장과의 표고차가 320여 미터나 되기 때문에



마치 새가 되어 절벽 아래로 날아가는 듯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동시에 4명이 이용할 수 있어 최대 시속 120km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주말과 공휴일, 여름 성수기에는 일반 차량의 전망대 통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아리힐스 주차장(북실리 620-7)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① 강원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35
짚와이어 4만 원
033-563-4100 www.ariihills.co.kr

스카이워크, 까마득한 절벽에서 공중산책

까마득한 절벽(해발 861미터) 끝에 매달린 길이 11미터, 폭 2미터의 알파벳 U자 모양 철골구조물 위를 걸으면 마치 하늘 위를 걷고 있는 듯 아찔하다. 게다가 바닥이 투명한 강화유리로 덮여 있어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이기 때문. 초속 50미터의 강풍에도 견디는 튼튼한 다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카이워크 유리바닥을 밟고 올라서면 오금이 저려온다.

① 강원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
어른 2천 원, 어린이 1천 원
033-563-4100 www.ariihills.co.kr



산책하듯 즐기는 북미 인디언들의 카누

춘천 물레길 카누+열기구 체험

카누(Canoe)는 북미 대륙의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물 위의 이동수단이다. 비교적 유속이 빠른 강물 위에서 짜릿한 스릴을 느끼기 위해 타는 카약(Kayak)이나 래프팅(Rafting)과 달리 카누는 여유롭게 호반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노를 저어도 되므로 부담이 적다.

강원도 춘천시내와 인접한 호수인 의암호는 카누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장소. 춘천 물레길은 스카이워크길, 봉어섬 물풀숲길, 중도 셋길까지 3개의 코스가 있다. 각 코스는 물레길 운영진이 그날의 기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코스로 안내한다.

송암레포츠타운 내에 자리 잡은 물레길사무국에

서 출발하면 호수와 주변을 둘러싼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호반 특유의 서정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삼악산과 의암댐이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일교차가 큰 날 안개가 피어오르면 환상적이다.

- ① 강원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13-1
카누 체험 3만 원
070-4150-9463(물레길사무국) www.mullegil.org

열기구, 춘천에서 체험하는 이색 레포츠

컬러풀한 열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이색적인 레저 스포츠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열기구를 이용한 관광상품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상에 줄을 묶어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계류비행과 약 40분 동안 하늘을 자유롭게 떠가는 자유비행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 ① 송암레포츠타운, 춘천역 등지에서 운영 예정
열기구 체험비 미정
033-242-6676 www.skyleisure.co.kr

물 맑은 내성천에 온몸을 내던져 더위를 잊다

봉화 맨손 은어잡이+수상 자전거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역시 차디 찬 물속으로 온몸을 던지는 것이다.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그 쾌감은 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봉화읍 내성천은 뜨거운 성하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최적의 장소.

1급수에서만 사는 은어는 청정 지역 봉화군을 대표하는 민물고기다. 봉화은어는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하고, 특유의 향과 담백한 맛, 탄력 있는 육질을 지녀 횡감으로도 일품이다.

7월, 봉화에 가면 내성천에 뛰어들어 펄떡이는 은어를 맨손과 그물로 잡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기다린다. 재빠른 은어 떼가 반두(그물)에 걸리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진다. 가족이 합심해 잡은 은어는 행사장에 준비된 공간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다.

- ①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506
은어잡이 체험 1만 원
054-679-6313~5 www.bonghwa.go.kr
※ 축제 기간: 7월 29일~8월 5일

수상 자전거와 수중 달리기

봉화 은어축제 기간 중에 물에서 즐기는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수상 자전거, 뗏목 타기, 내성천 어린이 물놀이장, 물장난 페스티벌, 수중 달리기 등이 있다. 그밖에도 문화유적 탐방, 워터파크, 가제 예술제 등의 체험 및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의 체험 비용은 봉화 은어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① 내성천보조 체험장
수상 자전거 1만 원



올로 예능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You Only Live Once! 그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이른바 '올로(YOLO)'가 새로운 대중문화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등장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어김없이 이 올로가 발견된다. 무엇이 이런 열광을 만들어낸 것일까.

글 _ 정덕현(대중문화평론가)



떠나서 아무 것도 안하고 싶다, 〈삼시세끼〉의 욕망

나영석 PD의 〈삼시세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금기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넘어섬으로써 오히려 큰 성공을 거뒀다. 〈삼시세끼〉 이전까지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1박2일〉 같은 여행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여행만을 보여주는 것은 못내 불안해, 항상 미션이 주어지고 하다못해 복불복 게임 같은 것이라도 해야만 했다. 〈런닝맨〉은 아예 내놓고 그 게임과 미션을 주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삼시세끼〉는 제목에 담겨 있듯이 시골 어느 집에서 정착해 살아가며 그저 '삼시세끼'를 챙겨먹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던 예능은 〈삼시세끼〉를 통해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당대의 우리네 삶이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하는' 일상을 하나의 로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상. 그것도 누군가와 경쟁적으로 해야만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 어느 시골에서 오롯이 삼시세끼를 챙겨먹는 걸 보여주는 〈삼시세끼〉를 대중들은 로망으로 생각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면 당장 떠나라. 그리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라. 〈삼시세끼〉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자 달라진 세상을 보여줬다. 급하게 일 속에서만 보냈던 도심에서는 좀체 그 정취를 느낄 수 없던 빗소리를 고요하다 못해 고적하게까지 느껴지는 시골에서 새삼 듣게 됐고, 밤을 낮처럼 비추는 네온사인 때문에 보이지 않던 별들을 암흑천지의 시골에서 발견하게 됐다. 매일 같이 돈만 내면 척척 사먹을 수 있어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은 시골의 텃밭에서 키운 상추쌈에 밥 한 숟가락에 얹은 고추장만으로도 충분한 맛을 느꼈다. 올로의 강령을 실현하면서 그것이 단지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달라진 시각과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삼시세끼〉는 보여줬다.



떠나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윤식당〉의 욕망

나영석 사단이 또 다른 올로 예능의 결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윤식당〉이다. 발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딴 섬에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신구가 한식당을 열고 외국인 손님들에게 음식을 파는 과정을 담는 이 프로그램은 〈삼시세끼〉와는 또 다른 차원의 올로를 담아냈다. 그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섬의 정경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이 연 가게에서 일하며 즐기는 삶은 어쩌면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이 아닐까. 〈삼시세끼〉가 떠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올로의 감성을 담아냈다면, 〈윤식당〉은 떠나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직장인들의 감성을 담았다. 따라서 〈윤식당〉에 어린 거리는 건 '개업 판타지'다.

하지만 개업이 〈윤식당〉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만만한 일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수들이 생기고, 그것은 자칫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위협요소

가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윤식당〉은 그런 현실을 담기보다는 오롯이 개업의 판타지를 담아냄으로써 대중들의 열광을 만들었다. 1호점을 만들어 의외로 몰려오는 손님들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지만, 다음날 바로 철거되는 위기에 처한 〈윤식당〉은 그러나 바로 하루만에 2호점을 오픈하는 기적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윤식당〉은 진짜 식당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밌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윤식당〉은 해외에서 촬영된 프로그램인데다, 철거 같은 변수까지 생겨 제작비가 만만찮게 들어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기분 좋게 진행됐고, 그 제작비의 손실은 고스란히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메워지고도 남게 되었다.

현실의 결핍을 채우는 판타지의 힘

〈윤식당〉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 올로 예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프로그램이 그것을 대리 충족해주는 그 판타지적 지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삼시세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당장 떠나 아무 것도 안하고 싶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당장 한 시간만 전화를 꺼놔도 쌓이는 문자메시지와, 한 시간만 비워도 티가 훤히 나는 일터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윤식당〉이나 〈삼시세끼〉의 성공이 거꾸로 말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삶들이 저 편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30, 40대 직장인들의 경우 그 어떤 세대들보다 직장생활의 팍팍함은 극에 달해있다. 늘 타인과 비교되고 경쟁해야 하는 현실. 넘쳐나는 구직자들 속에서 늘 위협받는 자신의 자리. 그래서 여유를 찾기가 어려운 그들은 그나마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주는 값싸고 짧은 대리만족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올로예능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 '여행'과 결합하고 있다는 건 그런 일탈에 대한 강렬한 대중들의 욕망을 반영한다. 그래서 실제로 휴가철이 되면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짧은 일탈을 강행하려는 그 욕망이 폭발한다. 해외여행을 나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지만 그 여행 또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내는 일탈이기에 돌아오면 그 욕망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윤식당〉과 〈삼시세끼〉 같은 판타지 올로 예능이 갈수록 힘이 세지는 이유다.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진짜 올로가 추구하는 것

방송에 담기는 올로가 판타지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자주 보이는 건 '여행'이라는 틀과 '소비'라는 측면이다. 떠나고픈 욕망과 무언가 갖고 싶은 욕망을 대리만족하는 형태로 올로가 방송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로가 자칫 여행으로만 소비되는 건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적인 미를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다. 사실 올로가 이처럼 대안적 삶으로 등장하게 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자도생'의 삶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 경쟁적 현실, 우리는 혼자 살아 남아야 한다. 그래서 올로는 거꾸로 이를 긍정화한다. 경쟁적 현실 자체를 벗어나 혼자서 살아남는 대안적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올로는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된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보다는 덜 갖고 덜 소비하는 삶을 선택하는 일이다. "하고 싶은 걸 지금 당장 하라"는 올로의 강령은 그래서 사고 싶은 걸 사라는 뜻이 아니다. 더 많은 욕망 속에서 더 많이 소비하고 소유하며 살다 보니 잃어버리게 된 '진짜 하고픈 것들'을 하라는 뜻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마음 가는 대로.' 이 문구는 우리에게 판타지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마음 가는 대로'라는 표현 속에는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소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올로가 추구하는 것이다.

〈팔로우〉 〈오쿨러스〉 〈렛미인〉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서늘한 공포영화

팔로우 (It Follows) 저주를 팔로우하라!

〈팔로우〉는 미국의 대표적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rottentomatoes.com)'에서 한때 평점 100점을 받았던 하이틴 공포영화다. 하이틴 공포영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음주, 성, 탈선 등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등장인물들은 모두 끔찍하게 죽는다는 것이다. 이는 공포영화를 보는 청소년의 의식 속에 은연중에 탈선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어 탈선을 막으려한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할리우드 프로덕션의 숨겨진 재미난 영화적 장치다. 〈팔로우〉는 그러한 하이틴 공포영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다.



19살 제이는 멋진 남자와 근사한 데이트를 한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섬뜩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 그녀를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존재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제이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주의 비밀을 쫓던 중 자신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다른 남자에게 이 저주

를 넘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화 〈팔로우〉의 공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자신만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저주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공포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갖게 되는 불안, 즉 집단속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 공포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결국 따라야 하는 청소년의 자괴감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팔로우〉의 공포는 젊은 관객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국 개봉 당시 4개 극장으로 개봉 했었으나, 젊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1,218개의 극장으로 확대 개봉하며 북미 극장수입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작품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흥행에는 실패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영화를 관람한 소수 관객들은 모두 그 공포에 매료되어 영화를 추천 '팔로우' 하고 있다.

● 감독: 데이빗 로버트 밋첼 ● 주연: 마이카 먼로 ● 2015년 개봉, 런닝타임 100분(청소년관람불가)



더위를 피한다고 휴가나 야외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집에서 공포영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피서가 될 수 있다. 올 여름 당신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공포영화 3편을 소개한다. 글 _ 손희준(영화사 ㈜더블엔조이픽처스 이사)

오쿨러스 (Oculus) 저주받은 거울에 복수를 준비하는 남매

공포영화는 신인 배우들의 등용장이다. 우리나라도 〈여고괴담〉 시리즈, 〈가위〉 등의 공포영화로 데뷔해 스타가 된 배우들이 많다. 〈오쿨러스〉에서도 차세대 할리우드 스타들의 풋풋한 신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자는 말이 없다〉 〈갓 오브 이집트〉의 주연을 맡으며 주목받고 있는 브렌트 스웨이츠, 〈주만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그리고 2018년 개봉예정작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의 여주인공 카렌 길런이 출연한다. 어린 시절, 충격적인 사건으로 부모님을 잃은 남매. 그 사건으로 동생은 소년원에 수감된다. 10년



후, 성인이 된 누나는 부모님 죽음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출감한 동생과 함께 부모님이 구입했던 거울의 비밀을 밝혀야 하는 누나. 거울의 저주가 부모님을 죽게 했다고 생각한 누나는 거울의 역대 주인들을 추적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거울의 주인들은 모두 4세기에 걸쳐 45명이 처참하게 죽었던 것이다. 거울의 주인들 모두 거울

에 조정되어 희생된 것으로 남매는 거울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오쿨러스〉가 특별한 건 기존 공포영화 주인공들이 공포의 존재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다면 〈오쿨러스〉는 공포의 존재에 대항하고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오쿨러스〉의 공포는 악령이 깃든 거울에서 나온다. 거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울에 홀리게 되고, 심지어 식물과 강아지마저 죽게 된다. 그러한 죽음의 거울에 맞서기 위해 남매는 디지털 카메라, 타이머, 램프, 비상식량, 아이폰 등 다양한 것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준비물들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장치가 되어 새로운 스타일의 공포를 표현해 낸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를 이겨내기 어렵듯 거울의 공격 앞에 남매는 더욱 가공할 공포에 빠져든다. 〈오쿨러스〉는 미국에서 제작비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국내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며 관객들의 검증 받은 공포 영화다.

● 감독: 마이크 플레너건 ● 주연: 카렌 길런, 브렌트 스웨이츠 ● 2014년 개봉, 런닝타임 105분(15세 이상 관람가)



렛미인(Let The Right One In) 왕따 소년, 뱀파이어 소녀를 만나다

우리에게 낯선 스웨덴 영화로 10년 전 국내 개봉 시 40여 개의 작은 상영관으로 개봉했지만 무섭고 신비롭다는 입소문이 나며 1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이다. 전 세계에서 성공한 영화로 할리우드도 이 영화의 마력에 빠져 클로이 모레츠를 주연으로 리메이크까지 했었다.

영화의 시작은 깊은 밤 함박눈이 내리는 스웨덴의 눈 오는 풍경으로 시작한다. 12살의 소년 오스칼은 옆집으로 이사 오는 중년의 남자와 소녀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을에선 피를 도둑맞은 시체들이 발견된다. 오스칼은 사실 학교에서 심하게 괴롭힘 당하는 소심한 소년으로 밤에 혼자 집 앞 놀이터에 나와 나무에 욱을 하고 칼을 휘두르며 분노를 표출한다. 그런 오스칼과 이엘리가 만나 둘은 친구가 된다. 하지만 창백한 소녀 이엘리는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즉 뱀파이어였다. <렛미인>은 기존 뱀파이어 영화와는 차별된 소



녀 뱀파이어라는 캐릭터, 스웨덴의 설원 풍경이 만드는 독특하고 신비한 분위기, 그리고 뱀파이어 소녀와 왕따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색다른 영화다. <렛미인>의 공포는 순백의 하얀 눈발에 붉은 피가 물들 때 느껴지는 시각적 충격과 같다. 은은하지만 강렬하다. 연약하고 외로운 12살의 소년은, 소녀를 만나 처음으로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대적할 힘을 얻는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감정이 알고 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느끼는 충격, 그것은 공포가 된다. 하지만 소년은 결국 소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둘은 하나가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기에 세상은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나면 아련함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렛미인>의 공포와 아련함에 빠져든 순간 당신은 더위를 잊게 될 것이다.



● 감독: 토마스 알프레드손 ● 주연: 카레 헤레브란트 ● 2008년 개봉, 런닝타임 114분(15세 이상 관람가)

귀담아듣는 독자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시우 및 가족들의 많은 염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염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본 영화가 사보에 나왔네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바로 <싱스트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보에서 <싱스트리트>를 배급한 이수 C&E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세훈 과장 자녀 원나빈 남(이수엑사보드 공무파트)



역경을 극복한 신입사원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기를 몇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Young 이수'를 통해 제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열정을 본받아 저도 멋진 도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명준 과장(이수화학 울산공장 검사파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이수인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평소 동물은 귀여운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대하는 사우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보는 내내 흐뭇했어요.

박숙희 님(주)이수 유엔재 사원 어머니)



커피와 문화를 다룬 '카페의 진화'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커피를 넘어 커피의 유래와 커피를 마시는 공간, 또 커피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호 기선 배우자 님(이수페타시스 적층1)

여름호 Mini Quiz

다른 그림 찾기 1번과 2번 사진의 다른 그림 5개를 찾아주세요.



1.



2.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7년 봄호 업서 당첨자

- (주)이수 HR팀 유연재 사원 어머니 박숙희 님
- 이수화학 울산공장 검사파트 김명준 과장
- 이수화학 온산공장 실험2파트 노형택 사원
- 이수페타시스 적층1 배쌍호 기선 배우자 님
- 이수페타시스 공무팀 설비파트 강두상 기선 배우자 님
- 이수엠피스 정제파트 김주연 사원
- 이수엑사캠 영업3팀 신원식 대리
- 이수엑사보드 공무파트 원세훈 과장 자녀 원나빈 님

2017년 봄호 정답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가을호 원고 마감은 9월 20일입니다. 문의 _ (주)이수 브랜드관리팀 (02)590-6895

이수그룹 공식블로그

BLOG OPEN

이수캐스트가 오픈했습니다



blog.isu.co.kr

이수캐스트 바로가기

